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제1독서 이사야서 50,4~7

화답송 시편 22(21),8~9,17~18,19~20,23~24 (© 2가)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후렴)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 까?

1.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2.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썰 수 있게 되었나이다. ◎
3.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4.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필리피서 2,6~11

복음환호송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마르코 14,1~15,47

영성체송 마태 26,42 참조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2018년 성유 축성 미사

- 일 시. 3월 29일(목) 10:30
- 장 소. 주교좌 남천성당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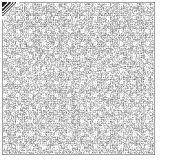


* 성유 축성 미사
생중계 바로가기

미사 중에 이홍기 세례자요한 몬시뇰 사제서품 50주년 축하식이 있습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3월 29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3월 30일) 전례는 7면에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신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부터 성주간에 들어선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성주간을 시작도 하지 못할 것이요 온 좋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은총을 입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성주간을 잘 시작하는 제일 중요한 태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묻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수난이 내 삶과 많이 관계될수록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수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핵심사건인 십자가라는 것은 많은 신자들에게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신자들이 우리 신앙의 깊은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십자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신비로만 남는다. 감히 깨달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자

신의 삶의 체험으로 파악되지 않는 어떤 것이 되어버린다.

자신의 삶이 온통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어둠인 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이 십자가 짐의 연속인 줄도 모른다. 내 인생은 항상 벗어나야 될 것으로 부정당하고 있기에 어둠과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더구나 그것만이 내 부활의 길임을 깨닫지 못한다. 또한 자신에게 충분한 십자가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십자가를 찾는다. 내 삶은 충분히 어둡고 괴로웠기에 내 삶 안에도 부활이 주어져 있음을 모른다. 마음에 들거나 말거나 내 삶인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신의 삶을 남이 인정해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십자가 주위를 계속 걸돌고 있다.

성주간에 우리는 수난에서 부활에 이르는 파스카를 통과하려 한다.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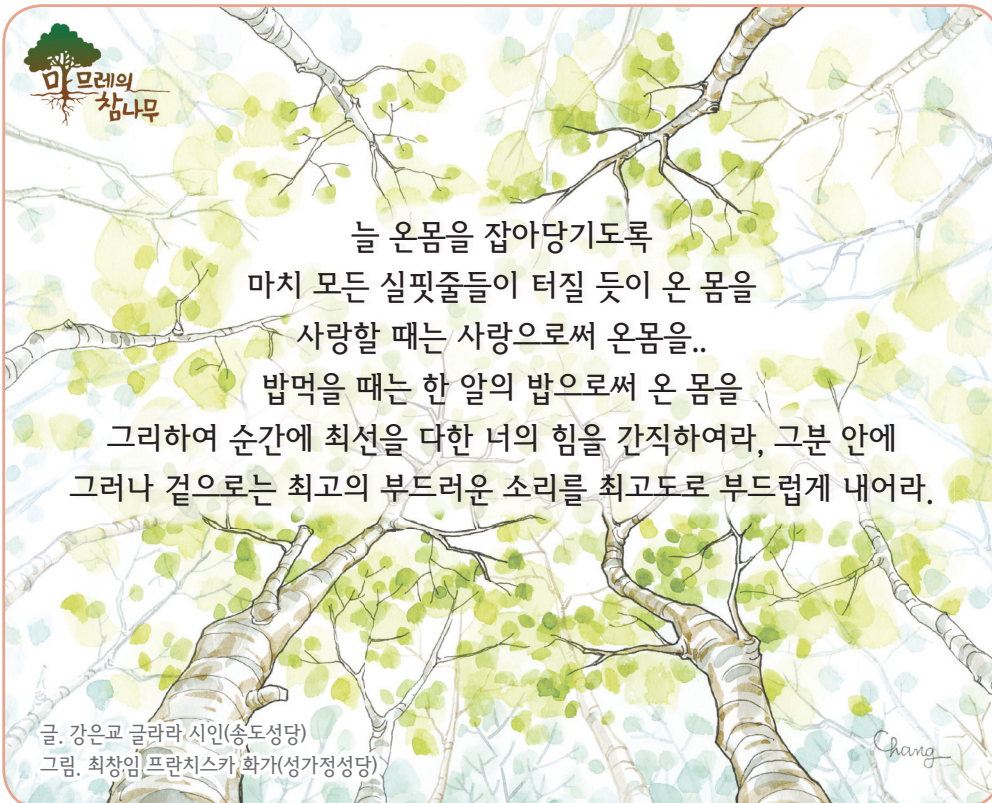
보기 싫은 내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은총을 진심으로 청하는 것에서부터 위대한 파스카의 여정은 시작된다. 그 여정의 끝에서 늘 내 안에 계시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도무지 십자가처럼 거룩하게 보이지 않아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내 인생의 부끄럽고 허접한 십자가를 그분께서 함께 짊어지고 계셨음을 깨닫는 날, 십자가라는 신비는 그렇게 편안하고 가벼운 모습으로 나에게 이해될 것이고 나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시편 118,22)

손태성
다미아노 신부
장유성당 주임

늘 온몸을 잡아당기도록
마치 모든 싹뿔들이 터질 듯이 온 몸을
사랑할 때는 사랑으로써 온몸을..
밥먹을 때는 한 알의 밥으로써 온 몸을
그리하여 순간에 최선을 다한 너의 힘을 간직하여라, 그분 안에
그러나 걸음으로는 최고의 부드러운 소리를 최고도로 부드럽게 내어라.

글. 강은교 글라라 시인(송도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3.26(월)~27(화)
손태성 신부(장유성당 주임)

3.28(수)~31(토)
김병희 신부(수영성당 부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우지민 아나운서

3.27(화) 성가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2편
출연 : 정승화 형제(부산가톨릭음악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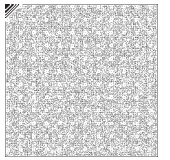
3.28(수) 본당 리포터
출연 : 안혜현 안나(연양성당)

신부들의 수다
3.31(토) 13:00~14:00
진행 :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

2018 신(神)부름 프로젝트
3월 주인공 : 신현정 힐데가르트(구봉성당)
“신부님~성경구절 캘리그래피로 써주세요!”



작은 관심, 큰 행복



우연한 기회에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힘든 상황이 없는지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방문한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구석진 골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환기가 안되고 청소도 하지 않아서 냄새가 코를 찡그리게 했습니다. 눈병이 있으신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사정을 상담하고 방문하여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 드리며 아들에게도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힘들어 아버지를 등한시하였다.'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쏠리니 아들도 아버지 집을 자주 온다고 합니다.

이후로 할아버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겨울 내복을 입고 있던 모습에서 옷도 계절에 맞게 갈아입고, 눈도 깨끗해지고 웃는

모습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사람은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달라지나 봅니다.

나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방문하고 보니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시간이 지나니 주님과 대화도 무뎠고 감사도 무뎠어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부산진역 광장 무료급식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밥 한 공기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들 중에는 앓던 모습을 한 중고등학생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밥 한 공기 먹으러 오는 노숙자들에게 천사와 같이 환한 얼굴로 상냥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요. 봉사는 결코 물질만이 아니고, 인사만으로도

선행을 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봉사하러 오신 레지오단원 한 분의 '봉사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쁨과 보람을 찾는 일입니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은 마스크에 보이는 화려한 삶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밥 한 공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외된 곳에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성주간에, 저 살기 바빠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웃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문자 말고 안부 전화 한 통화라도 걸어보아야겠습니다. 따뜻한 전화 한 통이 큰 행복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밝게 하는데 한 몫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공복자 유스티나

개금성당 • 시인 kongbog@hanmail.net

환경과 생명 만물을 위한 창조

“한 알은 새가 먹고, 한 알은 벌레가 먹고, 한 알은 사람이 먹는다.” 재밌게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속담과 비슷한 것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씨앗은 세 알을 심는다. 한 알은 신에게 바치고, 한 알은 사람이 먹고, 나머지 한 알은 새에게 준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 창조의 풍요로움을 고루 나누어 가지는 농사 정신이 담백 담긴 속담입니다. 아무리 빵을 자주 먹는다손 치더라도 변함없는 우리의 주식인 쌀을 맺는 벼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즘 벼는 대부분이 키가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지만, 토종 벼는 허리 이상으로 자라 그 키가 요즘 벼보다 2배나 큼니다. 키가 작으면 줄기에 갈 양분이 이삭에 가서 열매도 많이 달리고, 바람이나 큰비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토종 벼는 키가 큼니다. 평생 농사를 지었을 조상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키가 커서 수확도 적은 벼를 선택한 이

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키가 커서 수확은 적어도 더 많은 벼짚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벼짚으로 초가지붕을 엮고, 소먹이도 할 뿐만 아니라, 멍석이나 가마니, 짚신 등 생활 도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시 그 벼짚을 땅으로 되돌려 다음 해 농사를 위한 거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고작해야 당장에 필요한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다 부산물,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생명의 그물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만물을 그려모아 끊임없는 사슬로 엮어 서로 돕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자주 잊곤 합니다. 모든 문명을 뒤집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의 신비가 훨씬 더 살아있던 과거를 잇는 것도 결코 미래를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4월의
도서

나답게 행복하게

■와타나베 가즈코 지음 ■박지은 옮김
■바오로말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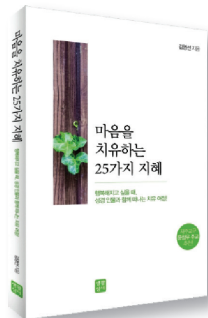


이 책은 수도자로 학생들과 오랫동안 생활한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의 깊은 통찰과 철학,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격려

와 용기를 주는 수필입니다. 나답게, 너답게,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요즘 들어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 ‘답게’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25가지 지혜

■김영선 지음 ■생활성서사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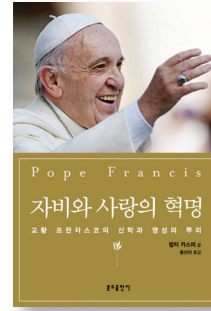


이 책에서 저자 김영선 수녀는 자신이 감추고 꺼내 보기를 꺼려했던 내면의 아픔과 억압, 슬픔과 분노, 불안과 절망 등 현

세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슴 속 상처들을 마주하고 이겨내도록 안내합니다. 나아가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회적 아픔을 함께 치유해 나가자고 초대합니다.

자비와 사랑의 혁명

■발터 카스퍼 지음 ■윤선아 옮김
■분도출판사 ■12,000원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후 이른바 ‘프란치스코 현상’이 일어나 많은 이가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열광하지만 한편에서는 신학적 무게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과 신학적 노선에서 가장 닮아 있다고 알려진 발터 카스퍼 추기경이 이 프란치스코 현상에 신학적으로 접근하여 프란치스코 신학의 근원은 ‘자비와 사랑’임을 알립니다.

교구 홈페이지 ‘책과 나는 정담’ 코너에 권장도서의 독후감을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사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2)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6,000원

“성사를 보다, 받다, 참례하다” 등 어느 말이 맞나요? 대세를 받고 병자성사를 받거나 봉성체를 할 수 있나요?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는 신자들의 성사에 관한 궁금증에 답하는 방식으로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 2권 ‘성사’』

를 발행하였습니다. 『성사』는 무엇보다도 주교회의가 그 내용을 인정한 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성사와 준성사에 관한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순 시기에 특히 회개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회개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묻습니다. 회개의 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어느 글에서 회개는 ‘하느님께 속한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두세 단어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심오한 신학적 차원 또한 담고 있어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 문장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실상 엄밀히 따져보면 내 것이라 우기는 모두는 공짜로 거저 받은(마태 10:8)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내 것이라면 처음부터 내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부터 처음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나의 공로와는 무관하게 그냥 주어진 것이지요. 재산도 잠시 내가 맡고 있는 것이고, 자녀도 사는 동안 내게 맡겨진 신

물일 뿐입니다. 쉽지가 않겠지만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훨씬 더 자유로울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것을 원주인에게 되돌릴 때 하느님의 자리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 자리는 창조 때부터 있었고, 우리 삶에도 처음부터 있었던 자리이지만, 우리가 빼앗아 지금은 없어져 버린 자리입니다. 이 하느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기쁨과 여유,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복음의 명령은 우리 삶 속에 바로 이 자리를 복구시키는 간곡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홍경완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jubo@catb.kr



모라성요한성당, 가두선교



3월 16일(금)
주임 : 강정웅 신부, 회장 : 정경자 울리안나

교 구

4월 교구 혼인강좌 안내

[부산 지역] 4.15(일) / 4.29(일) 15:00~18:50
예비부부와 기혼부부 모두 수강 가능
100% 인터넷 접수 / 선착순 50커플 / 당일접수 불가
문의 : 462-1870, www.bccenter.or.kr(가톨릭센터)

제55차 성소주일

· 4.22(일) 10:00~16:00 ·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주제 : 성소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지금! / 대상 :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
신청마감 : 4.11(수), 본당별 참가인원 신청
문의 : 629-8760~2(성소국)

사무처 직원 채용

분야 : 사무직 1명(예결 가능자, 졸업예정자 가능)
이력서 제출 : 4.22(일)까지, 우편접수
문의 : 629-8775(이력서 심사 후 추가서류 및 면
접일 개별통보)

명지성당 빈첸시오회, 지진 피해 이웃돕기



명지성당 빈첸시오회(주임 : 김상균 신부, 회장 : 김명선 요셉)는 지난 3월 2일(금)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 들꽃마을을 방문하여, 라면, 휴지, 수건, 이불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정하상바로영성관 사순 무료피정

· 3.26(월) 10:00~16:00
문의 : (055)383-3101, (팩스)383-3102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울산 : 3.26(월) 19:30 아음성당
주제 : 시대를 담은 사진사회학(정남준 작가)
문의 : 465-9508(정의평화위원회) / 무료강의와 미사

제23기 인문교전대학 개강

개강 : 4.3(화) 19:00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매주 화, 수, 목 강의(10주간)
화 : 하이데거 후기 작품 - 이부현 교수
수 : 가야사의 오해와 진실 - 유우창 교수
목 :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 김재경 교수
전화 접수 : 3.19(월)~4.2(일)
수강생 현장접수 : 4.3(화)~12(목)
문의 : 510-0554(인문학연구소)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교구 철야기도회
· 3.30(금) 휴회 (주님 수난 성금요일)
- 젊은이 성령기도회
· 3.26(월) 19:30 전포성당
· 3.28(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후원회 월미사
· 3.26(월) 11:00 / 점심 제공
- 수요치유기도 : 3.28(수) 11:00~16:00
*매듭을 푸는 성모님 9일기도
강사 : 이보경 자매
- 29기 성령묵상회 심화과정 1단계2차(기도회봉사자)
· 4.7(토) 15:00~8(일) 17:00
회비 : 5만원(교재비 5,500원 별도)
미사, 필기, 세면도구 지참

감물생태농부학교 5기 지원자 모집

· 4.6(금)~5.11(금) 8주간 당일 교육
이론(6주) - 금요일 19:00 가톨릭센터
실습(2주) - 토요일 10:00 감물생태학습관
대상 : 귀농, 혹은 텃밭 가꾸기 등 농사에 관심이 있는 분 / 교육비 : 8만원
문의 : (055)356-0026(감물생태학습관)

부산가톨릭신학원 수도자아카데미강좌

· 기간 내 매주 월요일 14:00~16:00
대상 : 교구내 모든 수도자 / 수강료 : 강좌당 3만원
[제1강좌] 교회생활의 정점이며 원천인 미사전례 : 4.9~30 (총 4회)
강사 : 김복희 수녀(울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제2강좌] 생태신학 : 5.14~28 (총 3회)
강사 : 권순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문의 : 464-7591(사전접수 신청)

가톨릭문인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시화전

· 4.14(토)~16(일) 10:00~17:00
·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 4.14(토) 10:00 감사미사로 행사 시작
문의 : 010-4844-5884, 010-2831-3530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 6,20)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에서 젊은 그대들을 초대합니다.
2018년 제4회 한국청년대회(KYD)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젊은 그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8년 8월 11일(토)~8월 15일(수) 4박 5일
 - 장 소 : 서울대교구 일대
 - 내 용 : 홈스테이 및 신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대회
 - 참가비 : 20만원 ● 인 원 : 선착순 100명
 - 신 청 :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홈페이지 (www.puna.kr) 참조
 - 문 의 : 051-629-8747(대학청년부)
- ※ 본당 사무실에서도 공문 확인 가능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충매를 받았다. (루카 1,30)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에서 2019년 제34회 파나마 세계청년대회(WYD)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세계의 가톨릭 청년들이 파나마 지역에 모여 신앙을 나누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며, 교황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청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1월 16일(수)~2월 1일(금) 16박 17일
 - 장 소 : 중미 파나마 일대
 - 내 용 : 홈스테이, 미사, 십자가의 길 등 다양한 프로그램
 - 참가비 : 450만원 ● 인 원 : 선착순 30명
 - 신 청 :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홈페이지 (www.puna.kr) 참조
 - 문 의 : 051-629-8747(대학청년부)
- ※ 본당 사무실에서도 공문 확인 가능합니다.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아)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 · 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괘들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나가사키 성지순례
6/25~28(3박 4일) 45명 모집
010-8511-2442, 253-5887
발해투어 www.valhae.co.kr
황 백 현 (프란치스코)

보험틀니 / 임플란트 / 심미보철
박진철치과의원
원장, 박 진 철(토마스)
www.박진철치과.com
552-2811, 553-2811
동래시장 횡단보도 앞 2층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험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안서룡,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업, 박상욱
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

50년 전통 명신당
목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옥(바로로) 김영란(제노베파)
646-7885
010-3599-7885
부산은행 범일점 맞은편

몽유애 웨딩(부산)
명품드레스, 스튜디오촬영, 신부대기실연출
※ 교우우대(대표상담) ※
봄 예식 할인 행사적용
대표 김 경 애 (비아)
0803-0301
범내골(1호선)
지하철 7번 출구 앞

내일N성형외과
최수중(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 코, 윤곽, 가슴, 지방성형, 보톡스, 필러, 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바른병원 2층) / 서구청 옆

존재활요양병원
재활중점/노인요양/외래진료
(통증치료, 신경, 정형외과)
병원장, 최준식(안토니오)
상담, 문의 525-7711
부산시 동래구 총령대로 372(안락동)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성모 신심 피정

· 3.26(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손우배 신부(예수회)

파티마의세계사도직 하느님 자비 주일 미사

· 4.8(일) 13:00 고해성사, 15:00 미사
· 푸른군대 경당 / 문의: 646-3746

바오로아파트 후원회 미사

· 3.26(월) 10:30 · 바오로아파트
문의: 514-6988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 3.26(월) 13:30 ·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644-1729, 0272

부산가톨릭음악협회 후원회 감사미사

· 3.27(화) 19:30 · 양정성당
연주: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주례: 임석수 신부 / 문의: 010-8545-6504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 4.3(화) 13:00 연합썰기도, 14:00 미사
· 복산성당 소성전 / 문의: 010-2428-5785

메리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60세 이하(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수자 및 예정자, 최근 1년 이내 사별경험이 있는 분 제외)
신청: 3.2(금)~31(토)
문의: 461-2340(담당수녀), 461-2709(사회복지사)

계간<부산가톨릭문화>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

보낼 곳: rose0624@hanmail.net
문의: 010-9365-0370, litera.catb.kr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교육 모집

· 4.25(수)~27(금) · 부산대병원 / 문의: 510-0785

시각장애인선교회 낭독, 녹음기술봉사자 모집

대상: 20~40대 남녀 / 활동: 매주 수요일 19:00
문의: 464-3909, 010-6751-0913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화 15:00~17:00 / 문의: 464-3909
·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3층 성전(박성태 신부)

오륜대순교자성지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월요일, 금요일 14:00~15:30
문의: 515-0030

평화 여성의 전화 상담 및 쉽터

월~일(24시간) 상담 가능 / 문의: 467-7897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463-7866

상담: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교육 · 모집 · 기타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3.27(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구속주회 신부 / 문의: 010-7132-6379

하느님의 자비주일 미사

· 4.8(일) 13:30 · 영성의 집
내용: 강의, 기도, 고해성사, 미사
문의: 010-3847-2796

하느님의 자비신심 묵상회(14차)

· 4.21(토)~22(일) · 영성의 집
문의: 010-3847-2796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한국외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2730-869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4.1(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부산교구 하늘공원
공원모지

3/31 성토요일 미사 없습니다
† 서틀버스는 정상 운행합니다
09:00 남천동 교구청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 운영 시간: 09시~17시(연중 무휴)
※ 분양 문의: 관리사무실 Tel. 055)374-8732~3

부산가톨릭대학교 영어미사

기간 매일 둘째, 넷째 화요일 오후 5시 10분
3/27, 4/10, 4/24, 5/8, 6/12

장소 부산가톨릭대학교 로사리오관 401호 성당

대상 영어미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문의: 510-0508(부산가톨릭대학교 교목처)

부산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영준 과장 진료개시

전문분야: 두경부 양성 질환
(인후두 역류, 음성, 편도·아데노이드, 침샘)

문의: 933-7210(이비인후과)

부산성모병원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가톨릭선학 복음 문화 나눔 행복 한 세상

가톨릭센터 문화공연 아름다운세상 73

장애인의 달 특집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공감 프로젝트'**

일시: 4/28(토) 16:00 장소: 가톨릭소극장 *무료 입장

내용: 신체적 장애를 딛고 선 클래식 전공생들의 감동무대

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 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양보호사 실업자 국비지원
간병사 대모집(초보자 가능)
: 병원/개인, 단체, 포괄간병
취업연계, 우수후원강사진

818-1004, 245-1004
천사요양보호사교육원

성모치과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법일동역 1번 출구 50m

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 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

법무법인 올강

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조세, 행정 등 각종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
717-2570, 010-7455-1031

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의
류마티스,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전문의 7명: 박인호(우가), 한경문
최평락, 유권희, 남화성, 김윤지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겸직: 박정미

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

(주)온누리투어
3박 5일로 떠나는 성지순례길
매주 1회 부산 출발

북부 베트남(하롱베이 일정 포함)
남부 베트남(다낭 일정 포함)
캄보디아 프놈펜(양코르왓 일정 포함)

853-1333, 010-4843-4020

동래 광안 참사랑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751-1515 김명희(야네스)

미래고속관광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행사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대표. 우 중 한(리차드)

055-333-6300, 010-3720-0303

욕실리모델링전문 욕실사랑
타일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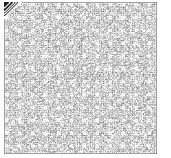
www.yLove.kr
김상오(야고보)

상담문의 **724-6774**
010-3225-3194

더고운 피부과 의원

피부질환, 기미, 색소, 레이저, 필러
보톡스, 리프팅, 여드름, 모공, 흉터
피부과 전문의. 정 세 원(마태오)

558-7575
온천지역 동래로플러스(뽕편) 우성빌딩 3층



주님 만찬 성목요일(3월 29일)

제1독서 탈출기 12,1~8,11~14

화답송 시편 116(114~115), 12~13,15와 16ㄷ,17~18
(◎ 1코린 10,16 참조)

◎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후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 것이네.

1.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2.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3.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

제2독서 코린토 1서 11,23~26

복음환호송 요한 13,34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요한 13,1~15

발씻김예식

영성체송 1코린 11,24~25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님 수난 성금요일(3월 30일)

주님 수난 예식

제1부 말씀 전례

제1독서 이사야서 52,13~53,12

화답송 시편 31(30),2와 6,12~13,15~16,17과 25 (◎ 루카 23,46)

◎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후렴)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 나이다.

1.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
2.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
3.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

4.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과,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

제2독서 히브리서 4,14~16; 5,7~9

복음환호송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요한 18,1~19,42

제2부 십자가 경배

거룩한 십자가를 보여 주는 예식

+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세 번)
◎ 모두 와서 경배하세. (세 번)

제3부 영성체